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재고

강상우 사회복지 Corm Deo. 牧師

논문 요약

일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도 열광하는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엇보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눈에는 트럼프의 반동성애 정책[親基督教政策]에 매력을 느낀 것 같다. 트럼프의 ‘반동성애적 정책=중요한 기독교세계관의 실천’으로 이해하였고, ‘트럼프의 집권을 가능케 한 정책=반동성애·반동성애 정책=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한 정책 추진[移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반동성애 정책이 전체 기독교 세계관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일까? 동성애 정책이 선거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적 빅 이슈[single-issue]인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정치[選舉]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개인적으로 반동성애는 단지 여러 기독교세계관들 중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를 단지 반동성애 문제만으로 극단적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는 (a) 기독교세계관은 특정한 이즘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이즘보다는 하나님의 편(on God's side)에 서야함을, (b) 반동성애 문제와 같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역이 아닌 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기[眺望]를, 더 나아가서 (c)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신 것처럼 일반은총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중심을 둔 정치적 이슈들을 제시할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것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주제어: 트럼프(Donald Trump). 선거. 반동성애. 기독교. 일반은총.

I 들어가는 말

로렌스 T. 제야찬드란(Lawrence Theodore Jeyachandran)은 모든 오류에 진리[어떤 의미에서 一理]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쉬운 산수 문제(算數問題)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오류에는 진리의 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산수 문제를 예를 들어보자. $2+2$ 의 정답은 4이다. 이를 T라고 부르자. 맞는 답은 단 하나 뿐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틀린 답은 무한하게 많다. 만약 당신이 틀린 답 중 하나, 예를 들어 5를 답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 틀린 답이지만 어떤 점에서 정답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틀린 답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T에 1을 더함으로써만 즉, T+1로만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오답인 3은 T-1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답은 절대적이지만 오답은 그 정답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답은 정답에 얼마를 더하거나 빼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계22:18-19)(Jeyachandran in Zacharias and Geisler. eds., 2005: 199).

그 때문인지 몰라도 넓고 깊게 보면 오류이지만 그 일부에 진리적 요소(T)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말처럼 어느 정도는 일리(一理)는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생각보다 무리(無理)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본 손혜숙 교수의 책과 이정훈 교수의 책이 그러한 예(例)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개인적 지식의 수준에서 논구하려고 한다. 먼저 손혜숙 교수는 그 이전에 번역서를 통해서 만난 신학자(牧會者)라는 점을 그리고 그 당시 손 교수의 번역서로 인해서 많은 도움(恩惠)을 받았었다는 점을 먼저 언급(感謝)해야 할 같다. 손 교수의 책은 번역서를 제외하고, 이번에 읽은 책 『트럼프 대통령의 새 시대와 동성애: 굿-바이 오바마 동성애, 성전환!』(2019)이 처음인 셈이다. 손혜숙 교수의 앞서 출판된 다른 책도 동성애와 관련된 『미국이 운다! 동성애』(밀알서원, 2016)였다. 이정훈 교수는 외부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 불교 승려(군법사)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점(2007년)도 그렇고, 그런 후에 법학자가 되었다는 점, 거기에다 이 교수 나름의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에서 그렇다. 이 교수의 책은 그 이전에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2018)를 읽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읽은 책인 『기독교와 선거』(2020)는 개인적으로 접한 이 교수의 2번째 책인 것이다.

먼저 손 교수는 동성애에 초점을 맞춰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지금의 트럼프 시절을 비교한다. 오바마의 친동성애적 정책—재임 당시 2015년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의 수술에 대한 부추김 등—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반동성애 정책으로—백악관에

있던 성소수자(LGBT)부서를 없애고, 2018년 6월 4일 미국연방대법원은 7:2의 압도적 결정으로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Jack Phillips)에게 대승리를 안겨준 것—희망의 연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바마의 어두운 시대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미국과 한국에 세계에 새 빛이 떠오르게 하셨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새 희망의 연주곡이 울려 퍼진다”(손혜숙, 2019: 14). 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는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책의 부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2020.04.15)을 준비하기 위한 나름의 저술인 것 같다. 인터넷 책 소개에 대한 정보에서도, 자신의 책에서도 그 책의 저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리고 기독교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활동 방향을 미국 기독교의 정치적 승리를 모델로 하여 제시한다.”(이정훈, 2020: 5).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책들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본고의 연구문제로 선택(選擇)해서 이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먼저 손 교수와 관련해서 동성애 이슈가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當落)을 좌우하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 것—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성경의 가르침인 것은 사실이며 더 나아가서 반동성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구별 짓기’의 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여러 의제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가치인지? 그리고 이 교수와 관련해서도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힐러리와 대선평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단순히 친기독교적 이슈(同性愛 包含)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이 교수의 주장처럼 “미국 정치의 경우도 트럼프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이 동성혼—동성애 정책을 강력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고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과 법안을 추구하는가 여부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주목했[기 때문일까?]”(이정훈, 2020: 146–147). 개인적으로 손 교수와 이 교수의 진단(記述)에 대해 매우 부정이라는 점을 밝혀드린다.

1) 연구문제와 연구범위

본 연구는 두 교수의 책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을 연구주제로 삼고자 한다.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연구문제 1: 同性愛와 選舉] 대통령 선거와 그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연구문제 2: 選舉와 基督教]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연구문제 1은 손 교수의 주장과 관련된 것이며, 연구문제 2는 이 교수의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참고로 연구문제 2는 이 교수의 책의 제목과 부제목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반동성애가 세계관 전쟁의 일부분이라는 점과 반동성애가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동성애를 통해 접촉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세계관의 정치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세계관 중의 하나가 동성애이기—이 교수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반공주의와 반동성애라는 협소한 세계관의 영역으로 환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때문이며, 손 교수 또한 트럼프가 선거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의 하나로 오바마와 다르게 트럼프가 반동성애적 행보(行步)라고 지적[言及]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정훈 교수도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을 많은 기술하고 있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연구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논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는 손 교수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오바마(Obama)이든 트럼프(Trump)이든 ‘그 나물에 그 밥’, 즉 ‘도토리 키 재기’(Not much of a difference)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는 외형적[名目上]으로 기독교인 것은 맞지만 그를 신앙인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매우 난감하다는 점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반동성애가 중요한 기독교세계관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당락 시킬 정도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단일 이슈(single-issue politics)의 선거일 때에는 동성애가 핫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동성애 문제=선거 단일이슈=대통령 중요 선택문제], 오늘의 정치[動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합체(amalgam, complex)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작-간 접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선거 이슈로써 작동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들이 존재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동성애 문제=다양한 정치이슈 중의 하나=대통령 중요 선택문제 아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당시 다양한 이슈들의 얽히고설킨 것임에 대해 나름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성(性, sex)과 같은 협소한 영역을 넘어서(beyond) 사회구조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정치 이슈들을 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관점 밝히기와 연구한계 그리고 용어의 사용

큰 범위 안에서 개인적으로 손 교수의 기본 전제처럼 반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이며,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뉘 ‘구별 짓기’의 하나의 방편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 교수가 지적한 다음의 진술에 대해서는 큰 범위 안에서 동의한다. “세계관 전쟁이 곧 가장 중요한 정치이고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개혁된 정치의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 확산시키는 진짜 정치참여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이정훈, 2020: 154).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성[同性愛]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 상대적으로 너무 침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세계관=동성애[성과 문제된 영역, 낙태 등=선거이슈]”이외의 것은 거의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보니 다른 영역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정치적 이슈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신앙이 개인의 칭의의 단계에 머문 것처럼[신앙=단지 칭의=구원],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비취진다[세계관=동성애=개인의 사적(性的)영역] 신앙이 개인의 구원 즉 칭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세계관의 영역도 동성애와 같은 개인적[性的]인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이슈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은 단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일반국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반은총의 범주에서의 기독교세계관에 합당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어느 특정 이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단골메뉴의 역할을 했던 색깔논쟁이나, 극단적인 친자본주의적인 토대는 역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歷史를 통한 國民的耐性]. 본 연구는 트럼프와 관련해서 강준만 교수의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2016)을 과도하게 참고[引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강 교수의 책을 재인용 시에 책의 각주도 어떤 부연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읽는 사람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글쓰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강준만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유는 다양한 여론[言論]을 인용하고 있어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준만 교수의 저서들이 지닌 매우 큰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용어 사용에 있어서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통상적 용례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타자화’(他者化, Othering)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려고 한다. 긍정적 의미의 타자화와 부정적 의미의 타자화다[一般的意味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전자는 구별짓기, 거리두기, 분별하기를 지칭한다. 후자는 긍정적 의미의 타자화를 넘어서 부정적 의미의 타자화 즉 악마화를 의미한다.

II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1. 동성애와 선거: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1) 그 나물에 그 밥: 도진개진

개인적으로 오바마나 트럼프나 ‘도토리 키 재기’라는 점이다.¹⁾ 물론 손 교수는 버락 오바마의 과거 친동성애적 행보에 대해서 비난적으로 지적한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반동성애적 행보에 대해서 무한한 지지를 표한다. 오바마에 대한 손 교수의 반감은 일반적이지 않은 오바마의 풀네임에 대한 기술로 드러난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바마의 미들네임인 후세인(Hussein)을 의도적[?!]²⁾으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라고 풀네임으로 적고 있다(손혜숙, 2019: 22)[‘오바마=이슬람과 관련된 출신, 고로 반기독교적 정책과 관련’됨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의도?] 그리고 친동성애 행보와 함께 친이슬람적 행보인 것처럼 보이게끔 보일 수 있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15년 12월, 미국 최초로 무슬림 여성 캐롤린(Carolyn)이 뉴욕 주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오바마는 그때 성서가 아닌 코란에 손을 얹고(미국 역사와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선서하도록 했다(트럼프는 코란에 선서하는 것을 금지시킴)”(손혜숙, 2019: 34).

1) 이재명, “트럼프 ‘바이든, 인지검사 받아라..대통령 되기엔 무능’ <연합뉴스> (2020.07.20) 댓글 **분홍소금**: 머릿속에 재선밖에 없는 양반... 전○환의 독단과 교만을 이○박의 교활함을 박○혜의 명청함을 집대성한 인물인데 최근 코로나 자화자찬하는 꼴이 시○평과 아○를 섞어 놓은듯~ 참 재미난 양반이야~ ㅋㅋㅋ

2) 트럼프의 이름과 관련해서 다음 참조하라. “트럼프는 자서전에서 할아버지는 스웨덴 출신이라고 썼지만 이는 아버지가 임대아파트 사업의 주요 고객 중인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스웨덴 출신으로 행세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할아버지가 미국에 건너와 적응하기 위해 성을 Drumpf에서 Trump로 바꾼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는 나중에 독일 출신이라고 실토하고, 독일계 미국인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강준만, 2016: 37)

개인적으로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친동성애적 행보보다는 오바마의 친월가적 경제정책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위 말해 오바마는 본질적으로 ‘백인 오바마’³⁾에 불과했다는 점이다[이는 Timothy P. Carney의 한국어번역 책의 제목이다]. 흑인 즉 가지지 않는 자들[the Have-nots]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티모시 P. 카니(Timothy P. Carney)는 자신의 책, 『백인 오바마(Obamanomics)』에서 저술 목적에서 지적하였듯이 민중[一般市民]과는 거리가 먼, 기업중심의 정책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겉으로는 민중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속은 새로운 기업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씌어졌다.”(Carney, 2010: 16) 그래서 카니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대기업’(big business)과 거대정부(big government)라는 의제를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물론 현행정부가 긴밀하게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에서 이처럼 꾸준히 기업주의(대규모 재계 단체들이 모여 국가 운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 협동조합주의라고도 함-역주)를 실천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구온난화 반대와 같은, 뉴딜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주의라고 몰아대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오바마 특유의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협조관계를 ‘오바마노믹스’라고 일컫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사회주의’를 실천한 가장 중대한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 부시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투입한 긴급구제금융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투입한 7,000억 달러를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2조 달러를 더하고 지금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Carney, 2010: 14-15).

알렉스 존스(Alex Jones)도 자신의 책, 『오바마의 속임수(The Obama Deception)』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오바마의 친월가[親金融資本]적 행보였다. “2008년 9월, 부시 대통령

3) 넬슨 만델라 대통령(Nelson Rolihlahla Mandela, 1918-2013)에 대해서도 백인 만델라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비 윌슨(Bee Wilson)의 책, 『식사에 대한 생각(The Way We Eat Now)』을 읽었을 다음의 내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아공의 식사 패턴이 가장 극적으로 급변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다. 이때 남아공의 수많은 흑인 인구가 처음으로 빈곤에서 벗어났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도시로 이주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남아공 국민의 삶은 여러 면에서 더 나아지고 안락해졌지만 식생활은 전보다 나빠졌다. 경제가 개방되자 국내외에서 생산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몰밀듯 남아공으로 밀려들었다. 가공 스낵바의 판매량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4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Wilson, 2020: 50). 국민보다는 기업중심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 월가의 긴급 구제금융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7천억 달러라는 비상카드를 꺼내놓았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통과되는 주택시장 위기로 가격이 폭락한 월가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게 된다. 말하자면 피 같은 국민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몰락 직전의 월스트리트를 구명하겠다는 극약처방이다.”(Jones, 2001: 10).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웹스터 타폴리의 지적처럼 오바마의 정책은 금융재벌들을 위한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좌익과 우익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따져야 할 것은 ‘당신이 월스트리트를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가?’이다.”(웹스터 타폴리/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Jones, 2010: 26 재인용).

“오바마는 완벽한 사기꾼이다. 그는 월스트리트를 위해 일하는 금융재벌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웹스터 타폴리)(Jones, 2010: 10 재인용).

정책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가? 손 교수는 트럼프의 반동성애적 정책으로 인해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금은 성서 두 권에 손을 얹고 2017년 1월 20일에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 즉 트럼프-펜스 시대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오바마의 백악관에 있던 성소수자(LGBT)부서를 없앴다.”(손혜숙, 2019: 75)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다. 미국과 한국에 세계에 새 빛이 떠오르게 하셨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새 희망의 연주곡이 울려 퍼진다.”(손혜숙, 2019: 14).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반동성애로 인해서 트럼프의 편[支持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트럼프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트럼프가 보인 행동과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 트럼프는 무엇보다 불신(不信)의 아이콘처럼 보인다. 음모론자나 부정론자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 반대 이데올로기”(anti-vaxxer ideology)에 기울어 있다(강준만, 2016: 184). 오바마의 미국 내 탄생을 불신—그래서 트럼프는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주장했다—하여 버서(Birther)로 불리는 그룹을 이끌었다고 한다(강준만, 2016: 129).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석유와 철강 같은 자원기업⁴⁾

4) 트럼프가 석유나 석탄, 철광 같은 자원기업편에 선 것이 힐러리가 월스트리트 기업에 선 것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월가는 모기지론에 의해서 ‘나쁜 놈들’로 기억되어 있었지만, 자원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삼은 것도 자원기업

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化石資本主義→Trump支持勢力=地球溫暖化否認]. 반대로 힐러리 로덤 클린턴—미들네임인 로덤[Rodham]은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써주기로 한다—은 금융권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金融資本主義→Hillary支持勢力]. 그것이 대선 당시 힐러리를 일종의 적폐[腐敗한 既得權 勢力]의 상징으로 내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월가점령(Occupy Wall Street)나 우리는 99퍼센트(We Are the 99%)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개념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경쟁력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창출했다”(2012년2월), ‘이처럼 매우 비싼 지구온난화 <헛소리>는 멈춰야 한다’(20141월), ‘나는 믿지 않는다. 누가 내게 뭔가를 증명해 줄 수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날씨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믿는다’(2014년9월) 등의 발언을 해왔다.”⁵⁾(강준만, 2017: 183-184 재인용) 그의 선거공약처럼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정 파기(탈퇴)⁶⁾했을 때,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결과의 심각성 때문에, 몸이 매우 불편한 고(故)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지구온난화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근접했다.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결정은 벼랑 끝에 있던 지구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 금성처럼 기온이 250도까지 치솟게 되는 것은 물론 매년 황산비가 내리는 지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Wallace-Wells, 2020: 213 재인용). 트럼프는 총기 사용규제를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가 그들의 서부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빈번한 총기 사고(뉴스를 검색해 보라. 미국에선 총기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총기 반납이 아니라 더 큰 화기[화력이 더 강한 총기]로 중무장을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거나 하는가. 물론 이 또한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표[票, 회원수와 로비력 그리고 자금력]를 의식하는 행위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말이다.⁷⁾ 이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어떤가? ‘한국 때리기’라고 하지

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5) 강건택, “트럼프 또 ‘자폐증은 백신 탕’... 의학계 비난 봇물” <연합뉴스> (2015.09.18); 황정우, “트럼프, 아일랜드 골프 리조트 해안 방벽 추진 .. ‘지구온난화 우려’” <연합뉴스> (2016.05.25); Carolyn Gregoire, “일부 보수층이 지구온난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11.24); 6-15; Marc Shapiro, Trump This!: The Life and Times of Donald Trump: An Unauthorized Biography. (Riverdale, NY: Avenue Books. 2016). 122.

6) 이재원, “트럼프, 파리기후변정 탈퇴 공식 선언” <KBS> (2017.06.02).

7)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총기판매상이 병원과 약국 등과 함께 필수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박장군, “미국서 ‘총기판매상’이 코로나19 필수 업종인 이유” <국민일보> (2020.03.31)

않던가?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처음 거론한 건 7월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였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여 가는 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대가 해결해줘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8월엔 이 주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나는 그동안 사업을 위해 삼성·LG 등 한국산 TV 4,000대를 구입했다’면서,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 8,000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꾀돈(peanut)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한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틀렸다고 거듭 지적해도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지프 최의 반론에 다시 ‘피넛론’을 꺼내든 것이다”⁸⁾(강준만, 2016: 189). 트럼프는 부자감세를 주장한다. 최근(2020.06.)에도 기사 내용 중에는 낮은 세금으로 정책으로 인해 미 월가 전략가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원한다고 한다.⁹⁾ “2017년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금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부유한 자들을 위해 2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승인했기 때문이다”¹⁰⁾(Wallace-Wells, 2020: 258).

2) 개인 트럼프와 신앙인(?) 트럼프

트럼프의 정책을 떠나서 개인으로서의 트럼프¹¹⁾와 신앙인으로서의 트럼프에 대해서 앞서

8) 이장훈, “남의 나라 왜 챙겨?” 바닥 민심 미국發 ‘동맹 균열’ 대비해야 <신동아> (2016년 5월호).

9) 유재준, “美 월가 전략가들, ‘낮은 세금’ 트럼프 재선 원해” <파이낸셜뉴스> (2020.06.16); 이준기, “여론조사서 트럼프 제친 바이든.. 증세공약에 떠는 월가” <이데일리> (2020.06.09).; 과거 나옴이 클라인(Naomi Klein)이 다음과 같은 지적은 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내각이 억만장자와 백만장자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이 정부의 기본 목표와 관련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무부에는 엑슨 모빌 출신이, 국방부에는 군수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와 보잉 출신이, 그리고 내각의 나머지 부서들에는 골드만삭스 출신이 포진해 있다.”(Klein, 2017: 12).

10) Rogers, David (February 28, 2018). "At \$2.3 Trillion Cost, Trump Tax Cuts Leave Big Gap" *Politico*. 더 높게 추산하는 조사도 있다.

11) “2016년 대통령 선거 얼마 후, 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이며 프롤로그를 함께 쓴 주디스 허먼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신경정신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공동 서명자인 가트렐 박사와 모스바처 박사(3부 9장 공동 집필)는 그 편지를 『허핑턴포스트』에 게재하도록 했다”(Lee, in Lee, ed., 2018: 31. Lee, “서문: 우리에게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29-43.) Greene, Richard (2016, December 17). "Is Donald Trump Mentally Ill? 3 Professors of Psychiatry Ask President Obama to Conduct 'A Full Medical and Neuropsychiatric Evaluation'" *Huffington Post*.; www.huffingtonpost.com/richard-greene/is-donald-trump-mentally_b_13693174.html.; “꼭 정신의학자여야만 지금 대통령이 정신적로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론도 그들만의 진단 용어를 내놓으면서 대통령을 ‘미친 왕’(mad king), ‘또라이’(nut job), ‘정서적 혼란에 빠진’(emotionally unhinged) 자라

밝힌 바처럼 강준만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트럼프는 말[言行]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다.¹²⁾ “트럼프가 한 말, 열에 일곱은 거짓?”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강준만 교수는 폴리팩트가 검증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사실 검증 사이트인 ‘폴리팩트’(www.politifact.com)가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 ‘폴리팩트’는 12월 21일 트럼프의 선거 유세 기간 발언 77개를 검증한 결과 76퍼센트가 ‘거의 거짓말’이거나,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며, ‘올해의 거짓말’(2015 Lie of the Year) 타이틀을, 트럼프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 폴리팩트의 진실성 평가는 ‘진실, 대체로 진실,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거짓,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 트럼프 발언과 주장 가운데 진실(2퍼센트)+대체로 진실(6퍼센트)은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대신 대체로 거짓(16퍼센트), 거짓(41퍼센트), 새빨간 거짓말(19퍼센트)로 76퍼센트가 거짓 주장으로 판명되었다.¹³⁾(강준만, 2016: 217-219)

트럼프는 여성편력이 심했[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탄핵과 관련된 혐의에서도 섹스스캔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르노 배우에 입막음용 대가 탈세·부당이익·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스캔들까지. 조사 중 혐의만 17개”라고 한다.¹⁴⁾ 강준만 교수는 트럼프

고 불렀다. 보수 칼럼니스트인 조지 윌(George Will)은 대통령을 ‘어수선한 정신’(disorderly mind)의 소유자라고 썼다.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 우리 의견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사납고 공격적인 장광설, 음모론적 망상, 사실 회피, 폭력에 대한 호감을 목격하고 당연하게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동료 시민에게 지지와 존중을 표하는 일이 된다”(Herman and Lee in Lee, ed., 2018: 21, Judith Lewis Herman and Bandy X. Lee, “프롤로그: 치명적인 혼란물”. 13-23 참조.); 최근 읽은 책의 저자는 생뚱맞게 갈레노스의 성격을 말하면서 트럼프를 언급하고 있었다.“갈레노스는 훌륭한 의사였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 자랑에 능숙했다. 역사가 프랭크 맥린에 따르면, 갈레노스는 늘 자신이 자수성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많은 토지와 쟁쟁한 인맥을 물려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입을 단았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음험한 책략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포장했다. 성격은 고대 로마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보면 된다.”(Wright, 2020: 20. 강조 본 연구자)

- 12) “언론인의 눈에는 트럼프야말로 거짓을 일삼는 선동가(demagogue)이자 가짜뉴스 공장이다”(최은창, 2020: 29);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가짜 CNN뉴스 영상이 ‘조작된 미디어’라는 경고 딱지가 붙었다는 기사도 있다. 김정기, “트럼프가 올린 가짜 뉴스..트위터 ‘조작’ 경고 딱지” <SBS> (2020.06.20)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흑백**(44분전): 대통령이란 자가 일베짓이나 하고있고 한심하다 진짜.
- 13) 정재철, “미국 대선 주자들도 ‘거짓 주장’ 많이” <내일신문> (2016.04.08); 송수경, “트럼프, 친구에 돈주고 대리시험으로 명문 와튼스쿨 부정입학” <연합뉴스> (2020.07.08); "President Trump made 16,241 false or misleading claims in his first three year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 2020); "President Trump's Lies, the Definitive List" *The New York Times*. (June 23. 2007).
- 14) 강기준, “트럼프 ‘탄핵 가이드’: 섹스스캔들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머니투데이> (2019.11.26). 우크라이나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 세금 스캔들, 기타 스캔들로 묶어서 기사는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의 전집사였던 Michael Cohen은 『불충한, 회고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의 실화』를 내달 출간한

의 결혼과 스캔들[艷聞]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잘 정리해 들려준다. 첫째 부인 이바나 젤니치코바(Ivana Zelnickova, 1949-)와 이혼상태도 아닌 결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17년 연하인 여배우 말라 메이폴스(Marla Maples, 1963-)와 바람을 피웠고(1991년 이바나와 이혼) 1993년 10월 메이폴스와의 사이에서 딸 티파니(Tiffany)를 낳고, 그해 12월 21일 메이폴스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트럼프는 1997년 5월부터 아내 메이폴스와 별거 상태에서 또 다시 1998년 24세 연하인 슬로베니아 모델 멜라니아 나우스(Melania Knasuss, 1970-)와 바람을 피웠고, 1999년 2월 메이폴스와 이혼했다고 한다(강준만, 2016: 93 이하 참조)[인터넷에서 트럼프의 가계도를 검색해 참고해 보라.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세의 유럽 왕의 가계도처럼 보일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메이폴스와의 두 번째 결혼생활 6년 만인 1996년 8월 영국 왕세자 찰스와 왕세자비 다이애나(Princess of Wales Diana, 1961-1997)가 이혼하자 트럼프는 다이애나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인기프로그램 「하워드스틴쇼」(The Howard Stern Show)에 출연해, “영국 다이애나비 그리고 가수 머라이어 케리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는데¹⁵⁾ 다이애나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소망 이상이었다. 다이애나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트럼프는 그녀야말로 ‘꿈의 여인’(a dream lady)이라고 말했다. ... 결혼을 한 세 여인 외에도 트럼프와 염문을 뿌린 걸로 보도된 유명 여성들의 이름은 배우 캐서린 옥센버그(Catherine Oxenberg, 1961-), 배우 로빈 기븐스(Robin Givens, 1964-), 이탈리아 가수이자 모델 카를라 브루니(Carla Bruni, 1967-[향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 됨]), 모델 캐럴 알트(carol Alt, 1960-), 모델 카라 영(Kara Young, 1969-), 테니스 스타 가브리엘라 사바티니(Cabriella Sabatini, 1970-), 올림픽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페기 플레밍(Peggy Fleming, 1948-), 화장품 회사 중역 조젯 모스바허(Georgette Mosbacher, 1947-), 디자이너 캐럴라인 로엠(Carolyne Roehm) 등 끝이 없었다¹⁶⁾(강준만, 2016: 96. 120).

다고 한다. 이 책에도 빠지지 않은 것이 ‘섹스’다. 석경민, “트럼프, 섹스클럽 다니고 아내도 속였다’ 이번엔 前집사 폭로” <중앙일보> (2020.08.14); 트럼프가 조카 Mary L. Trump가 썼다는 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 (Simon and Schuster. 2020)의 책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지만 충분치 않음” <위키백과> 참조).

- 15) 주희연, “WP, 기자 20명 투입 ‘트럼프 파헤치기’..WP 발행인 베저스 ‘트럼프 우주로 보내버리겠다’”, <조선일보> (2016.05.14).
- 16) Shapiro, Marc (2016). *Trump This!: The Life and Times of Donald Trump: An Unauthorized Biography*. Riverdale, NY: Avenue Books. 74, 77, 90; "Donald Trump," <Wikipedia>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는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이 섹스와 마약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카지노는 부자들에게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틀랜틱시티에서 큰손 도박꾼들을 섹스부터 코카인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아마도 바이크셀바움(Joseph Weichselbaum)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자산이었을 것이다. 바이크셀바움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트럼프는 그가 ‘지역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사에게 편지를 썼다[Johnston, 2016: 64] 그는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18개월 투옥되었다. 바이크셀바움에게 마약을 배달 해주었던 심부름꾼들은 최고 20년 형을 받았다. 그는 출소하자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트럼프 타워로 이사했다.”(Hedges, 2019: 352-353 [] 본연구자 첨가).¹⁷⁾

트럼프 개인의 인간됨은 여기에서 멈추고 트럼프의 신앙에 대해서 그림 살펴보기로 하자. 트럼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됨이 이런데 굳이 신앙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한 말 중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는 말이 있었다]. 그렇지만 앞에서 손 교수가 트럼프를 쌍수를 들어서 반긴 것도, 이 교수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언급한 것 중의 일부가 바로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앙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외면상 트럼프는 극단적 기독교 우파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헤지스는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기독교 우파가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 편협주의, 미국 쇼비니즘, 탐욕, 종교적 불관용, 분노를 신봉한다. 트럼프가 사실을 경멸하고 마술적 사고와 음모설을 좋아하는 것은 기독교 우파의 세계관과 어울린다. 기독교 우파들은 미디어, 학계, 자유주의 체제, 할리우드, 민주당이 구현한 세속적 휴머니즘과 같은 사탄 세력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후 변화는 사실이 아니고, 오바마는 무슬림이며, 2016년 선거에서 수백만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믿는다”(Hedges, 2019: 85-86). 강준만 교수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인 ‘눈에는 눈’을 지적한다. “[2016년] 4월 14일 트럼프는 라디오 방송

17) Johnston, David Cay (2016). *The making of Donald Trump* Brooklyn. NY: Melville House.

WHAM 인터뷰에서 ‘본인의 사고나 성격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묻자, ‘눈에는 눈’(eye for an eye)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국을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라면서 ‘그들은 면전에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일자리와 돈을 빼앗아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며 거듭 ‘눈에는 눈’ 구절을 상기시켰다¹⁸⁾”(강준만, 2016: 259-260. [] 본 연구자 첨가). 그렇다면 트럼프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일까? 트럼프는 성경의 가치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강 교수는 다음과 사례의 지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성경』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은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더니, 곧 그건 농담이라고 넘어갔는데¹⁹⁾ 아무래도 농담 같진 않다. 트럼프는 능히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이니 말이다.”(강준만, 2016: 193).

(2) 트럼프는 긍정·변영 신학의 신봉자다

강 교수는 트럼프와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목사와의 오래된 관계를 지적한다. 이는 트럼프가 긍정의 힘[신학]과 자기계발의 신봉자임에 대해서 지적한다. “혼전계약서라는 방패로 무장한 트럼프는 1977년 4월 7일 31세의 나이에 3년 연하인 체코 출신 이바나 젤니치코바(Ivana Zelnickova, 1949-)와 뉴욕 마블협동교회(Marble Collegiate Church)에서 트럼프 가문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노먼 빈센트(Norman Vincent Peale, 1898-1993) 목사의 주례로 결혼을 올렸다. 필은 『긍정적 사고의 힘』(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1952)이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미국의 대표적인 자기계발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 필의 세속적인 신학은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 1891-1971)에게서 ‘컬트’(cult)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주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는 필의 설교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것은

18) 김도훈,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눈에는 눈’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4.15).

19) 서하늘이,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컵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코노믹리뷰> (2015.11.13); 표현모,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홀리데이’냐?” <기독교공보> (2015.11.17); Bloom, Horace (2016). "Donald Trump and Adolf Hitler: Making a Serious Comparison(Pamphlet); Leblanc, Tricia (2016). "Donald Trump: Uncensored(Pamphlet).

필의 설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세속적으로도 긍정적 사고를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필은 트럼프가 ‘정직한 겸손’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는 등 두 사람은 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²⁰⁾(강준만, 2016: 55 재인용).

(3)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벤치마킹하였다.

헤지스는 오늘날 목사들이 트럼프가 출현한 리얼리티 쇼인 ‘디 어프렌티스’를 벤치마킹한 것처럼 기술한다.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에 출현한 트럼프를 벤치마킹해서 해서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독재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 “목사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산업체 안에서 그러하듯이 대형교회 안에서 독재적 절대 지위를 확보한다. ‘디 어프렌티스’ (The Apprentice)라는 리얼리티 쇼에서 누구도 전능한 트럼프에게 도전할 수 없듯이, 대형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목사에게 도전할 수 없다. 자신의 소규모 전제정치를 국가적 규모에서 실현해 백인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려 한다.”(Hedges, 2019: 87).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헤지스의 지적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최소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트럼프가 기독교와 목회자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과거 트럼프의 선거유세장의 분위기를 소개한 내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세장 분위기는 예상대로 종교 집회를 닮았다. 이슬람 이민자에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자신의 경험담을 말했다. 이슬람교도의 이민을 배척한 트럼프 공약에 맞춘 신앙 간증 같은 찬조 연설이다. 이어 록밴드가 트럼프 찬양가를 부른다. 지지연설이 지루해질 때쯤 되면 트럼프가 무대에 올라 정열적으로, 때로는 익살스럽게 연설한다. 그가 ‘위대한 미국의 부활’, ‘미국 최고’를 외칠 때마다 관중은 ‘할렐루야’, ‘아멘’ 합창하듯 환호한다”²¹⁾(강준만, 2016: 350 재인용)

미국의 극단적 기독교 우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과도한 과격함 아닌가? 자기계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에 돌림으로써, 각자도생의 삶으로 유도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았던가?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과

20) D'Antonio, Michael (2016). *The Truth about Trump*. New York: Thomas Dunne Books; Shapiro, Marc (2016). *Trump This!: The Life and Times of Donald Trump: An Unauthorized Biography*. Riverdale, NY: Avenue Books; Blair, Gwenda (2015). *Donald Trump: The candidate*. New York: Simon & Schuster.; Trump, Donald (2015). *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New York: Threshold Editions.

21) 송희영, “한국의 트럼프는 언제 나올까” <조선일보> (2016.05.21).

거리가 먼 과격한 종교적 수사들이 이 세계의 종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가? 성전이니, 무엇이네 하면서 말이다.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 트럼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3) 동성애와 기독교

손혜숙 교수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외관상 친기독교적 정책이라고 보여 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다. 트럼프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살리기 운동과 반동성애 정책이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쓰지 못하는 걸 가리켜 ‘언어도단’(totally outrageous)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런 비판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활용해왔다”(강준만, 2016: 193). “이제 더 이상 오바마 시대처럼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로 부르도록 강요되지도 않는다.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치고 부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소위 ‘동성결혼’을 거부했다고 교도소에 간다거나 판사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손혜숙, 2019: 45). 손 교수가 자신의 책의 중심 주제로 다루었던 것은 트럼프의 반동성애적 정책이다. 본고의 내용을 동성애와 관련 주제로 옮겨가보자.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자. 이 질문에 앞서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로 하자.

(1) 성경은 반동성애 텍스트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반동성애는 그리스도인 개인들에게 있어 ‘구별 짓기’의 하나의 수단[肯定的意味의 他者化]으로 삶 속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의 구별 짓기는 타자의 악마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반동성애가 긍정적 의미의 타자화[구별 짓기, 경계 짓기]를 넘어서 부정적 의미의 타자화인 악마화(惡魔化)의 경우로 변질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성적 일탈행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다른 성적 일탈행위인 간음이나, 간통, 혼전성관계 등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취급[理解]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적 일탈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자주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범주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통과 간음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認

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現實] 이들이 자신들의 성적 일탈행위[一種의 性中毒, sexual addiction]로부터 벗어나길 원할 때에는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임을 지각하여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경우 치료[轉向]와 상담이 필요한 것을 물론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동성애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이치다.²²⁾

(2) 오늘날 기독교에서의 동성애는 실정법상의 범죄(crime)가 아닌 종교적 죄(sin)다.

동성애는 간통과 같이 실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크라임(crime)은 아니다. 단지 신앙상의 죄인 신(sin)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법체계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크리미널(criminal, 犯人)이 아닌 시너(sinner)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때로는 다음과 같은 각주(脚註)가 필요한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세상법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인 것이다”라는 식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sin)임을 지적하면서도 왜 트럼프의 복잡한 성적일탈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가라는 말이다. 트럼프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그의 심한 ‘섹스스캔들’이기 때문이다. 왜 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인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손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陳述]에 대해서도 표현이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손 교수는 자신의 책 “제3장. 예수의 사역과 동성애”(손혜숙, 2019: 48-88)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부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의 복음 선포와 교훈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동성애’, ‘성전환’이라는 타락한 죄의 진흙탕 늪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이리 들어오세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자, 염려 말고 마음껏 욕망을 따릅시다.”

22) 이자연, “동성 선배가 7년간 성폭행..꿈접은 태권도 유망주” <Jtbc>. (2020.10.11). 참조.

거룩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제와 목사와 최고 지성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손혜숙, 2019: 61)

미국이나 이 나라에서도 손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친동성애적 태도[과하다고 보일 정도로 친동성애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슬프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부 교단이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극단적인 주장[論理展開]을 하는 것은 무리수(無理數)가 항상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짐작컨대 손 교수는 아마도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예수의 사역은 동성애를 배제한다 ... 간단히 말하면, 예수의 사역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부 딛치고 있는 동성애, 성전환, 양성애, 성소수자(LGBTQ) 등을 배제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한다.(손혜숙, 2019: 48-49)

앞에서 개인적으로 언급했듯이 동성애는 성적일탈의 행태의 하나로 봐야 하며,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잘못된 성적일탈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손 박사는 더 나아가서 “제4장. 예수의 엑소시즘과 동성애, 굿-바이 오바마 동성애”(손혜숙, 2019: 89-135)에서 다른 동성애와 관련된 또 다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 버전 귀신론”이라고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귀신론 버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거나사인의 지방(region of the Gerasenens)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막5:1-20; 마8:28-34; 눅8:26-39)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동성애와 관련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엑소시즘(exorcism)=동성애 추출로 이해하도록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교수에 의하면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役事)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귀신(Unclean spirit)²³⁾을 쫓아냈다. 예수는 동성애, 성전환 부류의 비정상적인 욕구와 모든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예수가 귀신(Demon)을 추출했다.”(손혜숙, 2019: 90). 다만 성전환 부작용 사례로 손 교수가 소개한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의 가는 부분이다.

23) NIV는 unclean spirit이며, KJV는 evil spirit로 표기하고 있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아 텍의 성소수자 학생회의 회장이 경찰의 총격을 맞고 숨졌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컴퓨터 공학과 4학년 스카우츠 솔츠(Scout Schultz)가 맨발로 경찰들과 대치하다 타이러 벡(Tyler Beck)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

왜 21세의 젊은 솔츠는 정신 붕괴(Mentally breakdown)를 겪으면서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자살 메모’를 3장이 남겨 놓았는가?

왜 이처럼 비정상적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주이 깊게 살펴보면 슬픈 장면이 드러난다. 솔츠가 사건 직전 911에 기괴한 전화를 걸었다.

“어떤 사람이 외곽 주변에서 살금살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 남자(He)는 손에 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가 히프 위에 총을 지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긴 금발을 지닌 남자(Male)이다”

솔츠가 설명한 이 모습은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건 테이프를 보면 바로 솔츠가 긴 머리를 하고 청바지를 입은 채 손에 칼을 지니고 있다. 솔츠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 자신을 묘사할 때 긴 금발 머리의 ‘남자(He, male)’라고 했다.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그의 고통스러운 표현인가!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격려하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의 얼굴은 여자인데 몸은 남자의 구조다. 솔츠는 불행히도 남자도 여자도 아닌 ‘비양성’(Non binary)으로 표현된다.

얼마나 괴상한 표현인가?

그는 정상인과는 다른 ‘괴상한 인간’이 되어 정신 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손혜숙, 2019: 143-145)

두 말 한 것 없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sin)다. 그렇지만 친동성애자이든, 반동성애자이든 상관없이 서로 간의 시민적 예의(civil decency)만은 지켜야할 것이다. 성전환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서 많은 속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가기 때문이다[과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는 멘트가 있던 광고를 기억 하실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 찬반의 문제가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이슈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지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낙태의 문제도, 아니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도 극단적으로 일부 사람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에게서는 아마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동성애 정책이 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의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러한 경우는 매우 미흡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연구문제 즉, 이정훈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로 옮겨가 보기로 하자.

2 기독교와 선거: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전술했던 것처럼 손 교수와 이 교수의 책이 만나는 접점은 바로 협소한 기독교세계관의 영역의 하나인 동성애 문제다. 이 교수의 다른 책인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2018)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자신의 책 『기독교와 선거』에서 무엇보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다음의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기술한 것이다. 물론 이 교수의 다음의 지적은 오늘날 동성애 관련 여러 문제들과의 관계에서 반동성애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범위 안에서 동의하는 바이다[실정법으로 법제화된다는 것이 주는 파급효과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이것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문제와도 다르며 목회자와 기독교인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문제와도 다르다(이정훈, 2010: 18).

1) 기본 전제

(1) 기독교는 특정 이즘(an ISM)이 절대 아니다

선거는 정치행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정치[選舉]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기독교는 이즘이 아니라 자(尺)다.”(Christianity is not Ism but Canon)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미국의 정치판에서 기독교가 자[尺]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것으로는 소저너스(Sojourners)의 편집자인 짐 월리스(Jim Wallis)가 표현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일 것이다.

“성경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 어느 한쪽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Wallis, 2008: 33)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종교는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종교는 어느 한쪽이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Wallis, 2008: 99).

박득훈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자크 엘뤼(Jacques Ellul)의 관점[主張]도 비슷한 요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뤼는 자본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봉건세계와 사회주의에 의해서도 기독교의 본질이 뒤틀려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옳은 관찰이다. 그런데 엘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Ellul, 1996: 30; 박득훈, 2014: 353, 1장 2번 주 재인용).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색깔논쟁[理念論爭]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선거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선거[政治] 이슈화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현지의 작동들이 성경의 가르침과의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2) 기독교세계관은 자(尺, Canon)이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이즘이 아니라 자(Measure)라고 한다면 그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나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view)이 필요한데, 바로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尺]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²⁴⁾ 이 교수가 “세계관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정치이다.”(이정훈, 2020: 153)라고 한 지적은 개인적으로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세계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세계관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세계관 전쟁이 곧 가장 중요한 정치이고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개혁된 정치의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 확산시키는 진짜 정치참여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이정훈, 2020: 154).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은 삶과 신앙을 분리시킬 수 없으며, 정치·경제·사

24) 강상우는 기독교세계관이 A·R·T PROCESS로 Filtering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강상우, 2011 참조). 기독교세계관이 정치적 이슈[선거 이슈]에 대해서 수용·거부·변혁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이정훈, 2018: 155). 기독교세계관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다.

세계관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관이 정치[政策參與]에서 중요하다고 하고 그 영역에 넓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그러한 넓은 영역에서의 정치적 이슈들을 실질적으로 내놓았느냐 하는 점이다.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分野]에서 조망(眺望)해 보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정훈 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해[言及]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협소한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동성애와 반이슬람에 거의 아이들의 표현처럼 ‘몰빵’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정치참여를 외친 기독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김형원의 다음의 지적에서도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공주의와 경제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붙들려다 정작 하나님께서 인간사회의 기초로서 주신 성경적 가치들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즉 성경적인 사회윤리와 사회-정치참여의 기준을 놓쳐버린 것이다. 기독교 사회윤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가치들이 있다. 정의, 평화, 공평, 인권, 약자보호, 상태와 같은 것들이다. 학자들마다 각 개념에 대한 정의와 실제적 적용에 대해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아무리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성경적 가치들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것은 결국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는 것과 같은 형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 보수교회는 이런 가치들을 마치 공산당 선언에나 써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반공과 천민자본주의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김형원, 2014: 135-136). 과거에 정치참여를 외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반공주의(색깔논쟁)과 친(親)자본주의에 몰빵을 했었다면 최근의 정치참여를 강하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반공과 반동성애(그리고 약간의 반이슬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3)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정치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난 이 나라의 정치현장이 정교분리의 장(場, field)이라는 점이다. 이 교수는 과거 기독교역사를 언급하면서, 기독교가 이 나라에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정훈, 2020: 129-130)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정치에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것이다. “정교분리란 정부나 정치권력이 교회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권적 기본권(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정훈, 2020: 132)고 말하는 이유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교분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하도록 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유산을 버리자고 말한다.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와 전혀 무관하게 형성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은 조선총독부가 교회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실행했던 일제 강점기의 버려야 할 유산에 불과하다.”(이정훈, 2020: 132). 그런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약간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을 볼 수 있다. 갑자기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작전 세력으로 친동성애자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편찬을 이런 교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이거나 교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동성혼-동성애 지지 세력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훈, 2020: 130, 강조는 본 연구자). 동성애 지지자들이 정교분리를 떠벌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참여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강점기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까지 정치는 안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치적 참여하면서 ‘정교분리’라는 수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치참여를 막[沮止]는 보호막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정교분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치화를 통한 ‘역설적 정치화’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최형목, 2013: 64).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성향을 지닌 기독교인들이[進歩性向] 드러내고 정치에 참여하면 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비난할 때에 가지고 나온 도구가 바로 ‘정교분리’라는 수사였던 것이다. “저들은 로마서 13장 1절을 모른가며. 어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을 안 들어봤는겨”라고 외쳤던 것이다.²⁵⁾ 교회가 로마서 13장을 통해 국가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25) “한경직 목사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며 일제가 주권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1939년에 로마서 13장을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인용했던 그가 7년이 지난 시점(1946)에서는 일제의 전쟁 패배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동일인물이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 1973년도 『신학지남』에 게재된 김의환 목사의 글은 로마서 13장이 권력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삼은 정교분리 담론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총신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김의환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만을 고집할 수

정치적인 행위였는데 이를 극구 부인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당시 기독교 세력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그 뒤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미야타 미쓰오(Miyata Mitsuo, 宮田光雄)의 책,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에서의 로마서 13장(國家と宗教)』를 번역한 양현혜 선생은 “옳긴이의 말”에서 로마서 13장이 과거 어떤 식으로 해석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개신교의 일각에서는 군사정권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현 정권’을 지지하는 행동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지각 있는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등을 돌렸다. 경악하는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당하게 지적했다. 자신들은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친 것을 충실히 지킬 뿐이며, 훌륭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그 후 역사는 현존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지당하고 상식적인 의문을 회색시키려는 데에는 언제나 로마서 13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를 공부하면서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양현혜, in 光雄宮田, 2004: 18. 양현혜, “옳긴이의 말”, 17-20 참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로마서 13장이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바울 사도의 서한은 대부분 직설법(直說法, Indicative)과 명령법(命令法, Imperative)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로는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은 먼저 직설법으로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神]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敎理, doctrine]에 대해서 먼저 예기한다. 그런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주님(Lord, Κύριος)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實踐, praxis]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는 12장을 중심으로 2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1장까지가 직설법 즉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실천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이해할 때에는 12장과 관련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²⁶⁾ 그래서 미야타 미쓰오(宮田光雄)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 근거하여 봤을 때 국가권력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김의환, 1973: 28]. 다시 말하면, 독재정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설명이다.”(강성호, 2016: 65, 173). 김의환 (1973).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 『신학지남』 . 40(1). 25-32; “1974년 11월에는 로마서 13장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 논쟁의 발단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예장 협동교단의 월남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대한기독교연합회(DCC)는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13장에 의거하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 [1974.11.28] 참조)(강성호, 2016: 179, 사진 설명의 글).

26) “톱 라이트는 로마서 13장 본문을 (앞서 7장에서 논의한) 로마서 12장 끝 부분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와 평화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 분명히 이 로마서 본문의 목적은 단순히 정부

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바울의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은 사실 로마서 12장 1절의 권고를 전제한다. 그 이하에 이어지는 바울의 권고는 말하자면 공통 괄호로서 다음 말로 묶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의 ‘진정한’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예배’는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뜻한다. 우리의 마음과 신체, 모든 생활을 다 바치는 이성적인 하느님께 대한 봉사, 도취되지 않는 사실적인 정치적-사회적 공동책임의 삶,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교의 과제다(宮田光雄, 2004: 242).

기독교 정치인들의 일부에서는 정교분리라는 정치의 장(場)에 대해서 인지[一時的妄覺?] 하면서도 신념[信仰]과 인기몰이[選舉戰略] 등을 이유로 구약시대와 같은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를 꿈꾼다는 점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정정치였고 중세의 유럽이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스려졌던 것처럼 말이다. 이와 관련해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가 자신의 책, 『교회의 정치학』 (After Christendom?)에서 조지 린드벡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 다음과 같은 지적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조지 린드벡(George Lindbeck)은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한때 문화적으로 국교의 지위를 가졌으나 아직 그 지위는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어색한 중간단계”에 있다고 논평한다.²⁷⁾ 어색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적어도 서구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동일한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헷갈려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적어도 추정적으로는 권력을, 아니면 지위라도 가진 것처럼 보이던 때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불확정적이고 보다 겸손한 어떤 입장을 자유주의 사회에서 탐색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Hauerwas, 2019: 37; Lindbeck, 1984: 134 참조)

역사적으로 필그림파더(Pilgrim Fathers)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또 미국의 건국 아버지

당국과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이상적인 모습,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정부가 언제나 이런 이상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이해했다. 또한 분명히 이 로마서 본문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지지도 아니며, 정부의 요구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명령도 아니다.”(Wallis, 2014: 349-350).

27) 인용 저서는 Lindbeck, George (1984). The Nature of Doctrin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또는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국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도 오늘날의 종교 환경에서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stances)를 잡을지에 대해서 어색해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상대적으로 이 나라는 미국처럼 필그림파더도 존재하지 않았고, 건국의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미국에서처럼 평가되어지는]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선교로 인해 기독교를 접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 대해서 기독교인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처럼 건국에 있어서 기독교라는 신앙이 기반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은 곧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신정정치를 실현하려고 한다거나[비록 그것이 선거를 위한 이중의 수사 rhetoric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성시화(聖市化)네, 봉헌(奉獻)이네 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의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과거의 기독교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고, 이 나라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수적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응집력에 있어서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치인들은 극단적 보수기독교보다 응집력을 강한 신천지와 같은 집단들을 더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특히 제한된 선거구[地方]를 가진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것이다.

2) 과거 뭐 때문에 트럼프는 당선되었는가.

다시 이정훈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가 당선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국 정치의 경우도 트럼프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이 동성혼-동성애 정책을 강력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고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과 법안을 추구하는가 여부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주목했다(이정훈, 2020: 146-147).

기독교세계관인 반동성애적 이슈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큰 이슈였을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친동성애자보다 반동성애자가 대통령이 된 것은—동성애 이슈 하나만을 생각할 때—다행스러운 결과일 수는 있다). 물론 트럼프의 종교 성향[앞에서 언급했던 기독교 우파적 성향]이 그와 코드가 맞는 이들을 결속시킨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해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평가[分析]다. 한 마디로, ‘힐러리 =친동성애 정책=기독교인 반대=대통령 낙선, 트럼프=반동성애 정책=기독교인 찬성=대통령 당선’은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극단적 환원주의적 평가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동성애 문제 그 자체에 몰빵한 극단적 성향을 지닌 선거인에게는 그러한 도식은 맞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단지 동성애로 대표되는 기독교적 가치 하나만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었다. 당시 “허핑턴포스트가 11월 ‘트럼프가 승리할 7가지 이유’”로 제시한 것[目次]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문제는 경제야 멍청이야
- 민주당의 분열
- 공화당의 문제
- 미언론
-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
- 트럼프의 변화
- 요지부동의 공화당 지지 주와 흔들리는 민주당 지지 주²⁸⁾

동성애와 같은 이슈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착을 보이는 이에게는 여전히 동성애ALL 이겠지만]. ‘트럼프가 승리할 7가지 이유’에서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이유를 굳이 찾자면 ‘트럼프의 변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왜냐하면 당시 트럼프는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변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성애 이슈[保守基督教政治議題]에 집착한 이들이 오바마의 친동성애적 정책에 대한 변화의 상징의 인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체 선거인단

28) 김민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7가지 이유” <시사플러스> (2016.05.04).

성향을 통해서 볼 때 반동성애적 정치 이슈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이유를 말하자면 다음의 것을 제시하고 싶다. 강준만 교수의 책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지적처럼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선거인들에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별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네 진보네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국에 달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당제 민주주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차이와 다를 게 없다며 코웃음을 치는 미국인이 많다. 진짜 문제는 ‘엘리트 대 비(非)엘리트’의 구도인데, 정치라는 건 출세한 엘리트들 간의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차이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둘은 더욱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싸움에 매달린다. 약 100년전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말한 ‘사소한 차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narcissism of small differences) 때문이다.²⁹⁾(강준만, 2016: 15).

제일 중요한 트럼프의 당선의 일등공신은 당시 상대 후보자인 많은 문제점을 지닌 힐러리[腐敗한 既得權, 'Killary'(Klein, 2018: 82)]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단지 변화에 대한 요구[必要]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변화의 상징보다는 적폐(積弊)의 상징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허핑턴포스트의 지적에서처럼 “워싱턴 정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힐러리는 타도의 대상인 기성 정치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김민호의 기사를 참조하라). ‘힐러리=적폐[부패한 기득권 상징] vs. 트럼프=변화의 상징’은 심지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지지자들까지도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샌더스를 지지하는 3,000여 명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18일 시카고에 모여 향후 진로를 논의하면서 힐러리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샌더스를 지지했던 전미간호사노조(NNS)의 로즈앤 디모로 집행이사는 ‘민주당 기구와 조직은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며 “클린턴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트럼프를 지지하라’는 말까지 했다.³⁰⁾”고 한다(강준만, 2016: 308). 물론 여러 저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도 트럼프의 당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PC(Political Correctness)도 (홍지수, 2018 참조³¹⁾), 당시 미국내·외의 ISIS테러와 브렉시트(반세계화)도, 트럼프의 기독교

29) Freud, Sigmund (1997).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역. 열린책들. 303.

30) 이용인, “클린턴·트럼프 ‘집안 단속’ 만만치 않네” <한겨레> (2016.06.20).

교 우파의 성향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는 생물(生物)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 행위인 선거는 그 성분상 아말감(amalgam)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는 최선이나 최악에 대한 선택보다는 차선(次善, the second best)과 차악(次惡, the second worst, the lesser evil)에 대한 선택에 가까운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가? 교회는[각 성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가든]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바보(Idiot)의 그리스어 어원이 “토론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정치적 판단력이 형편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피터 칼레오(Peter Callero)³²⁾의 지적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정훈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인 ACU(American Conservative Union)와 같은 연합체를 만들어 정당이나 선거후배에 대해서 보수주의 등급을 정한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인가? “먼저, 미국처럼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결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시민단체들이 연합(UNION)을 결성한다. 다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하는 방법이나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과 정당을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이정훈, 2020: 150) 미국과 같은 싱크탱크가 없어서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또 하나의 싱크탱크[聯合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그 누군가의 생계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만 하는가?]. 정치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기본전제로 나가서 살펴보기로 하자. 정치는 참여할 수밖에 없고(국민은 Idiot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하던 개인 스스로 하던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선 하건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것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31) 홍지수의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에는 “트럼프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정도(Political Correctness, PC)’라는 문화적 병리현상 때문에 당선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32) “토론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정치적 판단력이 형편없는 사람과 공동체의 요구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사람을 바보(idiot)라고 했다.”(Callero, 2019: 54)

(1)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야한다(On God's Side)

종교의 본분은 이데올로기나 당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도덕적 잣대로 좌파와 우파 모두를 비판하는 것이다(Wallis, 2008: 21).

기독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이즘(Ism)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정훈 교수도 ACU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보수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가 스스로 특정 이념 안에 자신을 케토화(Ghettoization)시키는 사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처럼 반공주의네, 친자본주의네에 집착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역사의 과정상 기독교가 어떤 특정 이즘의 자리에 상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次善/次惡的 選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편들었던 자본주의네, 반공주의네가 많은 문제점을 오늘날 이 사회에 표출하고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 결여되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도 이러한 특정 이즘에 맹종(盲從)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카지노자본주의네, 좀비자본주의네, 친민자본주의라고 말하지 않는가? 메카시즘(MaCarthyism)이라든가,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cf. Red scare, 색깔논쟁)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공주의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과거 발생한 고문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이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맹종하고 편들어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이즘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이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말로 잘못된 이즘을 향해서 ‘우리가 남인가’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그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옹호하게 되면 외부의 눈에서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積弊]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³³⁾ “잘못된 특정 이념 지지=기득권 세력=적폐=저항”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33) 기득권 옹호로 비춰진 모습으로 최형묵은 다음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주류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배척받고 있는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자청하여 박 후보가 그와 무관하다는 해명성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보호하고 나섰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 양상을 띠고 박빙의 경합을 벌였던 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보수주의 정권 재창출에

사회에서의 그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 광범위한 삶의 영역을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라.

“창조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다.”(“There is not one square inch of the entire creation about which Jesus Christ does not cry out, ‘This is mine! This belong to me!’”)(Mouw, 2004: 167)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세계관이 정치적 판단과 선거의 이슈의 선택에 있어서 기준[尺, measure]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기독교세계관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 R. 트루먼(Carl R. Trueman)이 자시의 책,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Republicrat: Confessions of a Liberal Conservative)』에서 자신의 저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보수적 정당 정치와 기독교적 충성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나의 확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태라는 쟁점을 공화당과 민주당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 다른 수많은 정치 주제들에 대한 지적인 논의를 죽여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쟁점에 대하여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기독교 입장에서 투표란 뻔한 것이며, 다른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토론도 아무 의미 없을 뿐이다.”(Trueman, 2012: 26. 강조 본 연구자).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세계관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영역의 낙태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만으로 기독교세계관의 범위를 축소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점이다(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정훈 교수도 기독교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각 영역으로 기독교세계관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은 하고는 있다. “이제 개혁된 정치의식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영역에 확산시키는 진짜 정치참여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이정훈, 2020:

위기감을 느낀 보수 기독교 세력의 정치 행동이었다.”(최형목, 2013: 29).

154). 그렇지만 실상 그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이다(손 교수와 이 교수의 공통점은 바로 기독교세계관의 일부 영역[매우 협소한]인 동성애 문제에 시선을 집중 [固定]한다는 점이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외부의 친동성애자들은 광적집착으로 볼 것이다]. 이는 미국의 보수 논객 중의 하나인 벤 사피로[Ben Shapiro]에게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Shapiro, 2018]³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기독교는 특정한 이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즘에 집착하게 되고, 기독교세계관은 그 범위가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특정 범위에 얽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넓은 지지 세력[層]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옆길로 좀 나가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집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에 대한 집착은 공적영역 즉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는 거리가 멀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건데 개인적으로 동성애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는 단일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와 정치 행위에 있어서의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부정하는 기독교 세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부의 눈으로 볼 때에 동성애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도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이들이 진정 교회 내의 성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에서 매우 의아(疑訝)해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일반은총의 범주 안에서 정치적 이슈를 제시하라

모든 경건하고 진실 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발견하는 곳마다 그 진리가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Every good and truth Christian should understand that wherever he may find truth, it is his Lord's.")(Augustine, 1958: 54; 이학준, 2011: 119 재인용).

34) 벤 사피로는 자신의 책을 통해 미국의 보수우파와 비슷한 논지를 전개한다. 그래서 그의 책은 “5. 섹스의 전당.” 106-132.과 “6. 신(神)이 떠난 골짜기” 133-145.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물[問]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섹스(성, 동성애)나 신(종교)의 존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익형량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정치권이 정교분리의 실천의 장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관련 대상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포함된다. 이는 비기독교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 이슈들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4095만 여명(2015년 11월 기준) 중 개신교 신자가 967만여 명(19.7%), 불교(15.4%), 천주교(7.9%)³⁵⁾라고 한다. 사실 교회는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집단 중의 하나다.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높은 계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2020.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온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3% 이상이면 되는데도 3%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라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하고 교회가 고령화되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론적으로 3% 확보는 누워서 떡먹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는 이번 총선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기독교 관련 정당들은 왜 집토끼도 잡지 못한 것일까? 단순히 정당의 공약만을 생각한다고 해도 기독교 관련 정당의 공약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움직일만한 이슈가 못되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집토끼들이 다른 것[먹이, 즉 다른 정당의 공약]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아닌 일반 선거는 다수의 투표수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된다. 이는 단지 기독교인들만이 뚝뚝 몽친다고 해서 당선인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응집력이 강한 이단들고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당선을 위해서]. 비기독교인들과의 연대[吸收]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대가 가능할까? 비기독교인인 산토끼를 잡는 방법은 일반은 총이라는 범주를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주님(Redeemer)이시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창조주(Creator)가 되신다.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신다. 햇빛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강조나 공공신학의 필요성 등이 그러한 사회적 맥락[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가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 1974년)을 언급한 이유로 사회참여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로잔언약의 정신을 따라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는 말한다(이정훈, 2020: 58). 그런데 사회참여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조적인 변화[巨視的改

35) 조일준 “왜 기독교는 ‘혐오’하는가” <한겨레21> (2020.06.23)

革]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무관심—심지어는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사회참여를 얘기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참여는 기득권을 유지[現狀維持]하는 사회 참여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기독교 역사는 실은 변혁의 역사였다. 류대영 교수가 지적한 대로 “미국 보수 개신교계가 19세기 초반 해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애쓴 사람, 여권 신장에 힘써 오늘날 여성주의의 선구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금주운동, 교육보급, 감옥개선, 빈민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런 활동을 전 사회적인, 혹은 전 국가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람들도 복음적 기독교인’이었다고 봤다.”³⁶⁾³⁷⁾ (김용민, 2016: 148 재인용; 류대영, 2004: 61–63;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는, 강상우, 2019 참조). 과거 기독교가 해왔던 전 사회적, 전국가적인 프로그램과 같은 이슈들이 중심이 된다면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최다득표자를 뽑는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끈]을 설정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오늘날 상황에서 비기독교인과 정치인 사이를 묶는 끈[줄]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정의는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성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과 그리스도인을 한데 묶게 하는 이슈인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정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시146:7–9)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책임을 맡은 일이 바로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를 책임진 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어느 정도의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롬13:4) 즉 악을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선과 정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정부와 권력자에게 맡기셨습니다(김형원, 2012: 40–41).

36) 류대영 (2004. 여름). “2천 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 사회』 . 62. 54–81.
 37)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름다운 역사적 전통이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간이 가면서 소홀하게 된 현상에 대해 ‘대역전(大逆轉, The Great Rever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Smith, 1976: 212.; Marsden, 1997: 191–210. “10장, 대반전” 참조.); Smith, Timothy L. (1976).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American Protestantism on the Eye of the Civil War. Gloucester. MA: Peter Smith. 참조.

III 나아가며

1. 정리하며

본고는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책의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나름의 대답이다[그 두 분 교수님들께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동성애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단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이는 너무나 환원 주의적인 태도로 이는 지양(止揚)해야 할 모습인 것 같다. 이 세상은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해야 할 산적(散積)한 다른 다양한 사회문제들도 많기 때문이다. 교회는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기독교세계관은 자(measure, 尺)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즘(ism)에 대해서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분별의 참여이어야 할 것이다. 지엽적(枝葉的) 이슈가 아닌 광의의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도 동의하는 범주 안에서 선거 이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나름 사족달기

1)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지적하는 ‘선택적 눈감아 주기’ 현상(Klein, 2018: 88)은 스스로 피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 그리고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후보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만을 가지고 환호하였다. 그분이 장로라고, 심지어 종교가 공식적으로 가톨릭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까지 그를 옹호하기 위해 기독교인[廣義의基督敎人]으로 간주했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장로라는 것이 맞물려서 일부 목회자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다.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을 운운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최근에 어디에선가 그의 이름을 이니셜과 발음을 조합해서 TOMB(墓, 李=이[二]=Two=TO[발음], 명=Myung 박=Bak)라고 씌어진 내용을 본 것 같다. 신천지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도 여성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몫 했다는 지적도 어디서 본 것 같다.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하는 목회자들

과 신천지가 여성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간접동맹을 하였다는 것이다[신천지 출현 정치하는 목회자들의 침묵]. 선거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인 개인의 문제다. 그렇지만 혹시 그리스도인인 정치인이 올바로 가지 않을 경우에도 기독교인들[共同體]은 맹목적인 지지보다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2) 참 슬프다. 명예도 없다. 자존심도 없다. 오직 돈만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는 진보든 모두 가 한 결 같이 돈독에 빠져 있다.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도 일반인이나 그리스도인이거나 mammon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공직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 젊은이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 초등학교들이 입에서 이백충(월수입 200 이하의 사람을 벌레에 비유)이나 삼백충이니,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LH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³⁸⁾ 역설적이게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이 사회는 평등사회가 되고 말았다. ‘평등(平等)’한 사회가 아니라, ‘평등(坪等)’한 사회말이다. 집의 평수[金錢]와 자녀들의 등급[學閥]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말이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이 참말로 매우 거시기하다. 이런 현실에서 기독교인은 신앙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참고문헌

- 강상우 (2019).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한 소고” 춘계학술대회. (통권 25호).
 강상우 (2011). “수용거부변혁과정-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 과정” 춘계학술대회.
 강성호 (2016). 『한국 기독교 후역사』. 서울: 짓다.
 강준만 (2016).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 서울: 인물과사상사
 김용민 (2016). 『한국 개신교와 정치: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 서울: 소명출판.
 김형원 (2014). “사회문제에 대한 복음주의의 실패, 이제는 넘어서자”. 조석민·김근주 외 5인
 공저 (2014).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답하다』. 대전: 대장간. 122-140.
 김형원 (2012).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SFC.

38) 박가영, “‘이백충, 월거지’... 초등학교 교실에 퍼진 ‘혐오’ <머니투데이> (2019.11.17).

- 박득훈 (2014). 『돈에서 해방된 교회』. 서울: 포이에마.
- 이정훈 (2020). 『기독교와 선거: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부산: PLI.
- 이정훈 (2018).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용인: 킹덤북스
- 이학준 (2011).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 손혜숙 (2019). 『트럼프 대통령의 새 시대와 동성애: 굿-바이 오바마 동성애, 성전환!』. 서울: (주)기독교문서선교회.
- 최은창 (2020). 『가짜뉴스의 고고학: 로마 시대부터 소셜미디어 시대까지, 허위정보는 어떻게 여론을 흔들었나』. 서울: 동아시아.
- 최형묵 (2013). 『한국 기독교의 두 갈래』. 개정·증보판. 이야기쟁이낙타.
- 홍지수 (2018).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서울: 북앤피플.
- 宮田光雄 (1996). 『國家と宗教』. 東京: 岩波書店. 양현혜 역 (2004). 『국가와 종교: 유럽 정권 사에서의 로마서 13장』. 서울: 삼인.
- Callero, Peter L. (2017). *Myth of Individualism: How social forces shape our liv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김민수 역 (2019). 『개인주의 신화: 우리는 왜 개인이 아닌가』. 서울: 황소걸음.
- Carney, Timothy P. (2009). *Obamanomics*. Regnery Publishing Inc.. 이미숙 역 (2010). 『백인 오바마』. 서울: 예문.
- Ellul, J. (1954). *L'homme et l'argent*. 양명수 역 (1960). 『하나님이나 돈이냐』. 대전: 대장간.
- Jeyachandran, Lawrence Theodore (2003). “힌두교와 초월명상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들”. Zacharias, Ravi and Norman Geisler (Eds). (2003). *Who Made God?* Grand Rapids, MI: Zondervan. 박세혁 역 (2005).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서울: 사랑플러스. 198-215.
- Jones, Alex (2009). *The Obama Deception*. 김종돈 역 (2010). 『오바마의 속임수』. 서울: 노마드 북스.
- Hauerwas, Stanley (1999). *After Christendom?: How the church is to behave if freedom, justice and a Christian nation are bad Idea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백지윤 역 (2019). 『교회의 정치학』. 서울: IVP.
- Hedges, Chris (2018). *America: The Farewell Tour*. Simon & Schuster. 최유신 역 (2019). 『미국의 미래: 7개 키워드로 보는 미국 파멸 보고서』. 파주: 오월의봄.
- Klein, Naomi (2017). *No Is Not Enough: Resisting Trump's Shock Politics and Winning the World We Need* 이순희 역 (2018). 『노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주: 열린책들.
- Lee, Bandy X. (ed.). (2017).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St. Martin's Press. 정지인·이은진 공역 (2018). 『드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파주: 심심. Judith Lewis Herman and Bandy X. Lee, “프롤로그: 치명적인 혼합물”. 13-23와 Brandy X. Lee, “서문: 우리에게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29-43.
- Marsden, George M. (1980).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 Oxford University Press. 박용구 역 (1997). 『근본주의와 미국문화』. 서울: 생명의말씀사. “제10장. 대반전”. 191-210.
- Mouw, Richard J. (1992).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 Shapiro, Ben (2004). *Brainwashed* 이남규 역 (2018). 『벤 샤피로의 세뇌: 미국 대학은 어떻게 좌경화되고 있는가』. 서울: 기과당.

- Trueman, Carl R. (2010). *Republocrat: Confessions of a Liberal Conservative*.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Company. 김재영 역 (2012).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 지평서원.
- Wallace-Wells, David (2019). *The Uninhabitable Earth*. 김재경 역 (2020). 『2050 거주불능 지구: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파주: 추수밭.
- Wallis, Jim (2013). *On God's Side*.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박세혁 역 (2014). 『하나님 편에 서라』. 서울: IVP.
- Wallis, Jim (2005). *God's Politics: Why the right gets it wrong and the left doesn't get it*. New York, NY: Harpercollins. 정성목 역 (2008). 『하나님의 정치: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새로운 비전』. 파주: 청림.
- Wilson, Bee (2019). *The Way We Eat Now*. 김하현 역 (2020). 『식사에 대한 생각』. 서울: 어크로스(주)
- Wright, Jennifer (2017). *Get Well Soon: History's Worst Plagues and the Heroes Who Fought Them*. DeFiore and Company Literary Management. 이규원 역 (2020).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서울: 산처럼. “토니누스역병” 15-37.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 손혜숙 교수와 이정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재고	발표자	강상우
		논찬자 (소속)	식종준 (침신대)

논자 강상우의 논문은 “기독교, 동성애 그리고 선거”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국 교계와 사회에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체 구성의 주된 내용은 손혜숙의 저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시대와 동성애](2019)과 이정훈의 [기독교와 선거](2020)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손혜숙, 이정훈 이 두 저자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른바 동성애 반대 담론과 정치 또는 선거를 적극적으로 연동시킨다는 점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집단 또는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이다.

논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논문 목적에 다가가려 한다. 첫째, “[동성애와 선거](손혜숙) 대통령 선거와 그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둘째, “[기독교와 선거](이정훈)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선 손혜숙의 “반동성애가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정훈의 “세계관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정치”라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논자는 자신의 논의 전개가 강준만이 저서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2016)에 크게 빚지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동성애와 선거](손혜숙) 대통령 선거와 그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논자에 따르면 손혜숙은 [동성애와 선거]에서 트럼프의 반동성애 행보에는 무한 지지를 보냈지만, 오바마의 친동성애적 행보에는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길으로는 약자를 돕는다면서,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자, 친무슬림주의자, 민중과 거리가 먼 기업중심의 정책을 이끈 위선자(악)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트럼프는 성서에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한 45대 미대통령으로서, 백악관 성소수자(LGBT) 부서를 없앴고, 성서적 복음주의자이다. 그러나 논자는 강준만, 짐 웰리스 등의 입을 빌어, 트럼프 역시 불신으로 가득찬 위선자이다. 즉 부자감세, 백신접종 반대, 지구온난화 음모론 주장, 파리 기후협정 탈퇴, 총기 사용규제 반대,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한국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부과 시도, 반복되는 불륜, 거짓말 등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신앙은 “백인 우월주의, 편협주의, 미국 소비니즘, 탐욕, 종교적 불관용, 분노를 신봉한다.” 따라서 논자는 손혜숙이 높이 평가한 트럼프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살리기 운동, 반동성

에 정책 등은 성서적이라기보다 기독교 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위선적 정치전략에 불과하다.

논자에 따르면 성경은 반동성애 텍스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동성애자의 구별짓기는 필요하지만, 타자의 악마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치유가 필요한 성적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논자는 동성애는 법을 어긴 범죄(crime)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sin)라는 지적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의 성적 일탈 등 수많은 죄(sin)들에 대해 이중잣대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둘째, “[기독교와 선거](이정훈)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논자는 이정훈이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동성혼 법제화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차별금지법 입법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논자는 이정훈과는 다른 다음 세 가지 전제를 가진다. 1) 기독교를 특정 이데올로기 지지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 2) 기독교 세계관 전체를 동성애 반대 이슈로 환원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기독교 세계관은 ‘자’(canon)이며, 그 범위는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 3) 기독교의 정치참여 정당성이 교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동성혼-동성애 지지세력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이정훈의 인식에 대한 반대이다.

논자는 한국 기독교는 ‘정교분리’라는 수사를 주로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정치 참여는 막는 데 활용했고, 실제 “군사정권을 위한 조찬기도회 개최”, “선거를 통한 신정정치의 실현” 등으로 적극 참여한 역사를 가져왔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정훈이 지난 미국 대선을 “힐러리 = 친동성애 정책 = 기독교인 반대”와 “트럼프 = 반동성애 = 기독교인 찬성”의 대결, 즉 힐러리 “악” vs 트럼프 “선”이라는 환원주의적 구도로 분석한 것은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의 논거의 의거할 때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같은 이슈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정훈이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과 그 연합을 결성하여 적극적 정치참여를 실행하자는 제안에 반대한다. 다만 대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먼저, 기독교는 ”이념”(ism)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하나님 편(on God’s side)에 설 것, 2) 기독교세계관을 동성애 같은 단일 이슈로 환원시키지 말고, 광범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것, 3) 비기독교인도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일반은총의 범주(공공선 또는 공적신앙) 안에서 정치적

이슈를 제시할 것 등이다.

논자의 결론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핵심 잣대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너무나 환원주의적 태도”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은 좌든 우든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독교세계관은 특정이데올로기 편향성으로 결코 환원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논찬자는 이상과 같은 논자의 내용 전개 구도가 손혜숙, 이정훈의 저작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세계관을 통한 진리의 실현을 전쟁, 인권,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 당면한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간과한 채, 동성애, 낙태 등의 특정 이슈로 환원시키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며, 무리한 적용일 수 있다는 입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논자가 기독교세계관의 특정이데올로기 편향성을 심각히 우려한 것에 동의하면서도, 손혜숙, 이정훈이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평가에는 얼마나 공정할 수 있는, 즉 이중잣대적 시각의 극복책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논찬자는 마지막으로 강상우 논문에서 드러나는 학술 논문에서 지양해야 할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을 제안한다. 1) 분량이 너무 많다.(전체 30쪽, 논자가 제시한 연구문제 1, 2를 나누어 두 개 논문으로 나누면 더 좋을 듯). 2) 학술 논문에서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어구, 구어체, 감상적 형용사 남발 등이 매우 빈번하다.(가령 자주 반복되는 “개인적으로~”(4, 5, 15쪽), “마음에 들지 않는다.”(5쪽), “생각이 든다. & 생각해 본다.”(7쪽 & 16쪽), “이해가 되거나 하는가.”(8쪽), “몰빵”(18쪽), “손혜숙 교수, 이정훈 교수, 양현혜 선생 등...”, “옆길로 좀 나가서”(26쪽), “뉘요, 정교분리 아니요. 뉘하자는 거요”(21쪽), “참 슬프다 명예도 없다. 자존심도 없다....”(29쪽)라는 등. 3) 논자의 동성애 관련 제안 부분의 논거(각주) 보완 등. 4) 수정 할 곳: 2쪽 아래 “김 교수”를 “이 교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가 선정한 본 논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탐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창조적 논제라고 보여진다.